

‘돌고돌고 돌아’ 기금운용 전문가… 허공에 날린 15개월

국민연금 CIO선임 배경·과제

수익률 제고·스튜어드십 코드 등 안팎 현안 산적 ‘조직안정이 우선’ CIO에 첫 ‘국민연금 출신’ 매니저



제8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선임된 안효준(왼쪽)이 지난 8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안효준 BNK 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부장(사장)이 선임됐다. 지난해 7월 강면옥 전 본부장이 돌연 사임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업계 안팎에선 유력 후보자 3명 중 유일하게 기금운용 경험이 있어 전문성 있는 인물 이 됐다는 평가다.

국민의 노후자금 643조원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은 안 선임 본부장이 CIO의 오랜 공백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 전문인력 이탈,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 등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새 CIO에 안 사장을 임명했다.

안 본부장은 부산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우증권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 호주 ANZ 펀드운용 펀드매니저를 거쳐 교보역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 및 BNK금융지

주를 이끌었다. 특히 2011~2013년 국민연금에서 해외증권실장과 주식운용실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이달 초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해외 투자와 기금운용 경험이 있는 안 본부장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IO에 국민연금 출신이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 선임 본부장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이 위기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국내의 자본시장과

국민연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임된 만큼 안 본부장이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익률 저하, 전문인력 이탈, 독립성 확보,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닥을 기고 있는 수익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의 주식·채권·대체투자 수익률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수익률은 평균 1.39%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인 7.26%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5.88%에 서울에 -6.11%로 급락해 1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증시 부진이 수익률 하락 등 시장이 좋지 않았다지만 목표수익률에도 0.69%포인트 못 미쳤다. CIO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만큼 안 본부장은 다양한 투자처 변화로 수익률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국내외 시장 변화를 살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지난해 2월부터 핵심 인력들이 국민연금행을 꺼리고, 내부 전문가들의 퇴사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까지 퇴사한 기금운용직은 총 41명에 달한다. 안 본부장은 “직원들과 스किन십을 늘려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지난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안착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직인 집사(steward)처럼 자신이 주식을 가

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지침을 의미한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기업 총수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안 본부장이 CIO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성주 이사장은 임명식에서 “삼성합병”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운용 수익률은 인력과 시스템에 달린 만큼 안 CIO가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CIO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률을 최우선에 두고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여건이 쉽지 않다”며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뒷받침이 CIO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재해위험지역 정비 생활권별 통합 추진

행안부, 내년 종합정비 시범사업

여러 부처가 각각 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생활권별로 통합돼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한 ‘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저류지나 펌프장 관련 사업은 행안부가, 하수도는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부가 각각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왔다면 앞으로는 ‘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도 한꺼번에 확보하고 설계도 통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단위사업별 공사를 통합해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만큼 계속되는 공사로 지역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통합실제로 시설별 규모나 용량을 종합 검토하는 만큼 과다·중복시설을 최소화하고 일괄 공사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북 임실과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를 시범 지역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상습가뭄해제지구’ 유형을 추가해 급수 지원이나 저수지 준설 같은 응급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가뭄 해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SKT-삼성서울병원 ‘유전체 분석’ 맞손

분석시간 ‘10분의 1’ 수준 단축 운영비용 최대 90%까지 절감

SK텔레콤은 삼성서울병원과 ‘유전체 분석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머신러닝·압축저장기술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삼성서울병원의 유전체 진단 및 분석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삼성서울병원에 제공하는 AI유전체 분석 솔루션은 SK텔레콤의 직원들이 사내벤처프로그램 ‘스타트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안해 사업화가 결정된 첫 사례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통해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면 유전체 분석에 드는 시간을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 DNA 변이, 염기서열정보, 질병정의



SK텔레콤 장홍성 IoT/데이터 사업부 데이터 유닛장(왼쪽), 삼성서울병원 박용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이 지능형 솔루션 개발 관련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산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기술이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압축저장기술도 유전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30억쌍의 유전체를 분석할 때 50GB에서 900GB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발생한다. SK텔레콤의 압축저장기술을 활용하면 병원이나 연구기관이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데이터 전송 시간도 축소돼 운영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장홍성 SK텔레콤 IoT·데이터 사업부 데이터 유닛장은 “SK텔레콤이 보유한 머신러닝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역량을 의료산업에 적용해 혁신을 이뤄낸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대용량의 유전체 데이터를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내년 전통시장 예산 5400억원 편성

>> 1면 ‘기업창업에 13조…’서 계속

2002년 대비 4배·올 보다 44% 늘어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조6555억원을 전통시장에 지원했다. 시장경영혁신,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다.

2002년에 910억원이었던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올해 3754억원까지 증가했다. 2002년 대비 약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44%나 늘어난 539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기부는 2005년에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당시엔 27조 3000억원이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선 21조8000억원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3조7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매출은 5조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매출액 추락 수준이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푼돈 지원’은 대형 유통기업 진출 등에 따른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뒷걸음질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게다가 시설현대화 등의 이유로 투입하는 예산이 오히려 전통시장내 상가의 가치를 올려 임대 상인들의 매출 상승보다 가게를 갖고 있는 건물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1328만명… 3.1% ↑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가 지난달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

계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28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1287만9000명)보다 40만 3000명(3.1%) 늘었다.

이는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폭으로는 2016년 2월(41만9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월별 고용보험

노동부, 월별 증가폭 31개월만에 최대 고용 질 개선… 서비스업중 대폭 증가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을 점점 확대 이번엔 처음으로 40만명에 진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7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